

Radical Disciple VII

말씀의 권세와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라.

1. 말씀

(1)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다.

[요한복음 1:14]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은 책이 아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말씀은 삶이 되는 것이다. 삶이 된다는 것은 삶의 가치, 방향성, 의미 등 모든 것을 말한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이해 못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며 사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해석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말씀은 그 자체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육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순종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안에 믿음이 되며, 능력의 실재가 된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8:8]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을 해석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은 적용하는 것이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말씀이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라 말함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2) 말씀은 선포이다.

말씀은 선포이다. 이를 ‘케리그마(Kerygma)’라 한다. (케리그마란,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 창조의 때를 기억하라.

[창세기 1:2-3]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상태’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공허, 혼돈, 흑암이다. 육체로, 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이 도우신다. 바로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선포하신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권위의 중심이다. 권위란 '정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곳에 '질서'가 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조화를 이룬다. 권위란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권위자로 아는 것은 당연하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당연히 알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권위가 있다. 이 권위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의 권위를 계승한 왕자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도 선포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났다. 그대로 되는 것이다.

2. 권세와 능력

(1)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마가복음 16:17-18]

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안에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안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권세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때 단순히 내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12-13]

1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아들의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신다. 그 권세와 권위가 우리 안에 있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합법적 권위라는 것이다. 이 권세를 우리 안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안에 있는 권세를 이제 회복해야 한다.

(2) '엑수시아', '두나미스'

엑수시아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두나미스(다이너마이트)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한다. 이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권위는 말씀안에 있다. 그리고 능력은 성령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두나미스의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 현장에서 나타났다.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현장이다. 즉,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있게 선포되는 현장에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권세앞에 귀신이 떠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능력이 이 땅에 실상이 되는지 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3) 사도행전 19:11-16 의 사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치유되었고 귀신이 떠났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이와같이 말하였다.

[사도행전 19:15-16]

15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16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사건을 보라. 귀신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한 마술사들을 이기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말씀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4) 권세와 권위를 소중히 여기라.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것이다.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풀어진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 '케리그마'의 말씀선포를 회복하라. 말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

'알고(비전), 바라보고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확신), 그리고 믿어야 한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 권세있게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1장의 믿음이 실상이 된다. 마가복음 16:17-18에 나타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다른 차원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자.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